월드컵 16강 이끈 황희찬의 한 방…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

카타르월드컵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 역전 결승골
절반 가까운 지지…2위 조규성·3위 백승호 모두 월드컵 골

황희찬(울버햄튼)이 2022 카타르월드컵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터뜨린 역전 결승골이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에 올랐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황희찬이 경기 막판 터뜨린 결승골이 축구 팬들이 뽑은 2022년 최고의 골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올해의 골' 팬 투표 결과, 황희찬의 골이 전폭적 지지 속에서 1위에 올랐다. 총 투표자 2만236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807명(48.3%)이 황희찬의 골에 표를 던졌다.

황희찬은 지난 3일 포르투갈전에서 1-1로 팽팽한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토트넘)의 패스를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1·2차전에 결장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며 강한 존재감을 뽐냈다.

이 골로 한국은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황희찬의 득점은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카타르월드컵에서 기억해야 할 순간 7장면'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골 2위와 3위 모두 월드컵에서 나온 게 차지했다.

조규성(전북)이 가나와 2차전에서 기록한 다이빙 헤더가 5650표를 얻어 2위, 백승호(전북)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터뜨린 왼발 슛이 2961표로 3위를 차지했다.

팬들이 함께 뽑은 '올해의 경기'도 월드컵 포르투갈전이었다.

짜릿한 2-1 역전승에 이어 우루과이-가나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 그리고 감격의 슬라이딩 세리머니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경기는 총 투표자의 73.5%(1만6433명)가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팬들이 뽑는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는 2002년부터 협회가 매년 연말에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황희찬이 결승골을 넣고 손흥민과 기뻐하고 있다.

매킬로이, 세계랭킹 1위로 2022년 마무리…김주형 15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올해 마지막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지켰다.

27일(한국시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이 발표됐다. 매킬로이는 올해 마지막 세계랭킹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승을 쓸어담은 매킬로이는 10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캐머런 스미스(호주), 페트릭 캔틀레이(미국), 욘 람(스페인)이 2, 3, 4, 5위에 올랐다.

김주형(20)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15위 자리를 지켰다. 김주형은 올해 2승을 올리며 PGA 투어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2023년 전망을 더욱 밝혔다.

임성재(24)는 19위에 올랐고, 이경훈(31)은 38위, 김시우(27)는 82위에 자리했다.

리디아 고, 여자 골프 세계랭킹 여전히 1위

고진영은 5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올해 마지막 발표되는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랐다.

27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리디아 고는 지난달 말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리디아 고는 오는 30일 명동성당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넬리 코르다(미국)과 아타야 티띠꿀(태국)이 각각 2, 3위를 수성했다.

호주교포 이민지는 4위, 고진영(27)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를 달리고 있다.

전인지(28)는 8위, 김효주(27)는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 페퍼저축은행 합류… "팀 성장에 기여할 것"

오지영 데려오며 GS칼텍스에 2024~2025시즌 신인 지명권 내줘

오지영이 트레이드를 통해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사진=페퍼저축은행 제공)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34)이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한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GS칼텍스 오지영을 받아오고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2006~2007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은 오지영은 KGC인삼공사, GS칼텍스를 거쳤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2020 도쿄올림픽 4강을 이끌었다.

오지영은 "시즌 중 트레이드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페퍼저축은행으로 오게 돼 기대가 된다. 페퍼저축은행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S칼텍스 구단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은 "신생구단의 장기적인 팀 빌딩 관점에서 베테랑 리베로의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 오지영의 경험이 우리 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영이 잘 적응해 팀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최하위에 머물며 아직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의 합류로 분위기 전환을 바라고 있다.

오지영은 28일 '새 홈 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IBK기업은행과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뉴시스

호날두, 사우디 진출 임박했나…"메디컬테스트 예약"

연간 1억7300만 파운드 수준…알나스르 합류하면 감독 선임 권한 부여할 듯

'떠돌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는 27일(한국시간) "호날두 영입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가 호날두와 계약을 위해 메디컬테스트 일정을 예약했다"고 보도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원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별한 호날두는 현재 소속팀이 없다.

2022~2023시즌을 앞둔 여름 프리시즌부터 소속팀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호날두는 구단 수뇌부, 코칭스태프를 비롯해 팀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맨유와 계약을 해지했다.

세계 미디어는 월드컵 기간 내내 그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구단이 알나스르다. 호날두 측은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연봉 수준과 계약 조건이 알려졌고, 이번엔 메디컬테스트 일정까지 잡혔다는 내용이 새롭게 전해진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호날두가 알나스르의 제안에 동의하면 연간 1억7300만 파운드(약 2660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스페인 '마르카'는 "계약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계약 조건은 2억 유로(약 2720억 8600만원)"라고 전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날두 영입의 배경으로 2030 월드컵 유치 도전을 꼽으며 2030년까지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데일리메일'은 "알나스르는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 호날두와 계약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날두는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 밖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원한다면 팀의 감독을 임명하는 데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프로축구 전북, 떠난 송범근 대체자로 골키퍼 정민기 영입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일본 J리그로 떠난 국가대표 골키퍼 송범근(쇼난 벨마레)의 대체 자원으로 정민기를 낙점했다.

전북 구단은 27일 "FC안양의 골키퍼 정민기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중앙대를 거친 정민기는 2018시즌을 앞두고 안양에 입단해 지난해부터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해 경험을 쌓았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주전으로 뛰면서 리그 77경기에 출전해 30차례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뛰어난 순발력과 반사 신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민기의 활약에 힘입어 안양은 두 시즌 연속 K리그2(2부) 3위에 올랐다. 정민기는 두 시즌 연속으로 K리그2 베스트11 후보에 올랐다.

전북은 정민기의 합류와 골키퍼 김정훈의 전역 복귀로 최근 팀을 떠난 송범근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기는 "전북은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하는 팀"이라며 "든든한 모습으로 팀이 보다 빠르게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번 배지환·5번 최지만"…美 매체 피츠버그 라인업 예상

최지만 트레이드로 피츠버그 합류하며 내년 시즌 한 팀에서 활약 예고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함께하게 된 배지환(23)과 최지만(31)이 팀의 리드오프와 중심타자를 책임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피츠버그 지역매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27일(한국시간) 2023시즌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다.

매체가 내놓은 내년 라인업은 톱타자 배지환(중견수)과 오닐 크루즈(유격수)의 테이블세터로 시작한다. 이어 브라이언 레이놀즈(좌익수)-카를로스 산타나(지명타자)-최지만(1루수)이 중심 타선을 이룬다.

잭 스윈스키(우익수)-키브라이언 헤이즈(3루수)-로돌포 카스트로(2루수)-오스틴 헤지스(포수)가 뒤를 받친다.

매체는 내야는 물론 외야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배지환을 외야수로 분류했다. 이어 "스피드와 뛰어난 배트 컨트롤, 출루, 다양한 수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성은 부족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배지환은 10경기에서 타율 0.333(33타수 11안타) 6타점 3도루를 작성했다.

지난달 트레이드를 통해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피츠버그로 이적한 최지만은 중심 타자 활약이 점쳐졌다. 매체는 "1루수와 지명타자는 최지만과 산타나가 번갈아 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만은 2022시즌 팔꿈치 부상을 안고 뛰면서 113경기 타율 0.233, 11홈런 52타점을 기록했다.

뉴시스